

신학생 필독서 100권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 역음

책을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미래교회의 지도자인 신학생들이 책 속에서 길을 만나
도전하고 성찰하는 지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이 책을 펴냅니다.



100권의 책을 옮겨 읽을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출판하는 일에서부터 4개 신학대학교가 함께 하는 독후감 공모와 독서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좋은 생각과 고민을 격려하고 한국 교회의 앞날을 위해 이를 동력화해 낼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인식에 투철하며 새 시대를 책임질 만한 통 큰 영혼의 소유자들이 출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적 가난과 생태적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파의식을 벗고 세상을 옮겨 구할 수 있는 영적 에토스를 지닌 젊은이들을 키워 볼 생각입니다. 삶의 고단한 현실 앞에서 인문학적 지혜가 주는 보편적 상상력이 예수의 복음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를 만나 세상 안에서 세상 밖을 살았던 앞선 신학자들의 저술을 읽을 때, 비록 서로 신학의 길을 달리 출발했으나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신학생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점차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을 온전히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문 중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신앙과지성'의 강력한 힘을 지닌 지도자들을 길망하며 선정한 100권의 책

- 1 20세기 신학 2 가이아와 하느님 3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 4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 5 그리스도를 본받아 6 그리스도와 문화 7 기독교강요론 8 나는 어떻게 변화였는가
- 9 나는 왜 + 어떻게 신학을 하는가? 10 나를 따르라 11 나와 너
- 12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13 다문화와 여성신학 14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 15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16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17 바울 읽기
- 18 살아있는 역사 교회사 19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20 성스러움의 의미
- 21 고백록 22 세계 교회 이야기 23 세계 윤리 구상 24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 25 신학의 토착화 26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 27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 28 예수의 의미 29 울림 30 용과 그리스도교 31 이반 벨리히의 유언 32 인간현상
- 33 종교의 미래 34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35 종말론에 관한 과학과 신학의 대화
- 36 지혜를 위한 교육 37 창조와 타락 38 천년과 하루 39 폴 틸리히
- 4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41 하나님 나라의 모델
- 42 한국 교회 이야기 43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성경 44 희망의 신학
- 45 힘내라, 한국교회 46 감각과 영혼의 만남 47 김예슬 선언 48 건지 자서전
- 49 거짓의 사람들 50 고쳐 쓴 한국 현대사 51 공감의 시대 52 과학과 근대세계
- 53 과학혁명의구조 54 국가 55 깊은 강 56 나의 생애와 사상 57 대담
- 58 대학의 이념 59 대학·중용 강설 60 뜻으로 본 한국역사 61 문명화과정
- 62 물질, 생명, 인간 63 미쳐야 미친다 64 백범일지 65 시몬느 베이유 불꽃의 여자
- 66 사다리 걸어차기 67 사랑의 기술 68 살아남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 69 상처입은 치유자 70 새로 쓰는 성 이야기 71 생각의 지도
- 72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73 서양미술사 74 선인들의 공부법
- 75 쉽게 읽는 퇴계의 성학십도 76 소유나 존재나 77 시간의 역사
- 78 시인을 찾아서(1, 2) 79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80 신화의 힘
- 81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82 앞의 나무 83 여성 근대의 사명론
- 84 오래된 미래 85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 86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87 이것이 인간인가
- 88 이타적 유전자 89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90 장미의 이름(상, 하)
- 91 정의란 무엇인가 92 죽음의 수용소에서 93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94 참회록 95 천국의 열쇠 96 철학 이야기 97 탐욕의 시대 98 학문의 즐거움
- 99 화성에서 온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100 황홀한 글감옥

값 10000원



9 788985 602677

ISBN 978-89-85602-87-7 94230
ISBN 978-89-85602-50-1 (세트)

교회 일치를 위해 100권의 책 함께 읽기

감신대, 서울신대, 장신대, 한신대 신학대학원 도서관이 함께하는 책 읽기 운동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지나면서 핑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그냥 볼 수 없어, 우선 4개 신학대학교 도서관장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웃 종교들의 몰락을 비웃고 조롱한 지 한 세기만에 이 땅에 빛으로 들어온 기독교가 다시금 옛적 그들의 운명을 반복하는 현실이 한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도서관과 이를 책임지는 교수들이 나섰느냐 하면, 아무래도 신학생들에게 책읽기는 기도와 같은 것이라 여겨졌고, 이를 통해 잔잔한 혁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좋은 책을 가려 제대로 읽고 교과를 막론하여 젊은 마음으로 같은 책을 더불어 읽을 수 있다면, 장성한 목사가 되어서도 그 때 그 심정이 되어 자신을 되돌아볼 것이며, 옛 친구들과 함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할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니다.

이제 6년만 지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매년 10월 종교개혁 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제삿날처럼 단지 과거를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개혁정신이 오늘 이곳에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주일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기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노해의 시한 구절이 말하듯,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볼 때에만 사라진 듯이 보였던 희망이

소생할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모인 도서관장들 회의에서 인문학적 성찰을 지닌 깊은 맛의 책들을 통해 장래 목회자가 될 제자이자 후학들에게 현실을 온건하게, 그러나 치열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꿈을 품고 찾아온 신학생이 교회 울타리에 갇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한 교파의 목사가 되어 직업인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파적 정서에 휘둘려 교회 일치에 대한 소망도 품지 못한 채 기독교 역사가 흘러간다면, 우리가 자랑했던 종교개혁 500년 역사와 어찌 마주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차례 모임과 찬반 토론 끝에 4개 신학대학교 도서관장들은 100권의 책을 필독도서로 엄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신학도서와 인문 교양도서를 합하여 100권을 선정했으며, 신학교 4년 혹은 6년 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동시대를 사는 신학생들 모두에게 이 책을 읽힐 것을 결의했고, 함께 읽고 토론하는 장(場)을 만들어 주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격려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를 위해 '책이좋은사람들'을 조직하여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신앙과지성사'의 대표 최병천 장로가 함께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100권의 책을 옹기 읽을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출판하는 일에서부터 4개 신학대학교가 함께 하는 독후감 공모와 독서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좋은 생각과 고민을 격려하고 한국 교회의 앞날을 위해 이를 동력화해 낼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인식에 투철하며 새 시대를 책임질 만한 통 큰 영혼의 소유자들이 출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적 가난과 생태적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파의식을 벗고 세상을 옹기 구할 수 있는 영적 에토스를 지닌 젊은이들을 키워 볼 생각입니다. 삶의 고단한 현실 앞에서 인문학적 지혜가 주는 보편적 상상력이 예수의 복음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를 만나 세상

안에서 세상 밖을 살았던 앞선 신학자들의 저술을 읽을 때, 비록 서로 신학의 길을 달리 출발했으나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신학생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점차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을 온전히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의 거듭남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6년 앞으로 다가올 종교개혁 500주년이 너무도 무색해질 것 같아, 신학생들과 함께 학문과 신앙의 산실인 신학대학교 안에서 첫걸음을 옮겨 봅니다. 저마다 다른 공간에서 행해지겠지만, 젊은 시절부터 함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세상을 읽는 눈을 더불어 키워 간다면, 이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책임질 때에는 한국 교회와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디 이런 미약한 운동이 장대한 일이 되어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널리 확장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종교개혁 주간에 맞추어 부족한 이 책을 감히 여러분에게 내어놓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장



서문 · 3

신학

1. 20세기 신학 · 8
2. 가이아와 하느님 · 11
3.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 · 14
4.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 17
5. 그리스도를 본받아 · 20
6. 그리스도와 문화 · 23
7. 기독교강요선 · 26
8. 나는 어떻게 변화였는가 · 29
9. 나는 왜+어떻게 신학을 하는가? · 32
10. 나를 따르라 · 35
11. 나와 너 · 38
12.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 41
13. 다문화와 여성신학 · 44
14.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 47
15.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50
16.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 53
17. 바울 읽기 · 56
18. 살아있는 역사 교회사 · 59
19.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제화 · 61
20. 성스러움의 의미 · 64
21. 고백록 · 67
22. 세계 교회 이야기 · 70
23. 세계 윤리 구상 · 73
24.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 76
25. 신학의 토착화 · 79
26.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 · 82
27.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 85
28. 예수의 의미 · 88
29. 울림 · 91
30. 용과 그리스도교 · 94
31. 이반 일리히의 유언 · 97
32. 인간현상 · 100
33. 종교의 미래 · 103
34.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 106
35. 종말론에 관한 과학과 신학의 대화 · 109
36. 지혜를 위한 교육 · 112
37. 창조와 타락 · 115
38. 천년과 하루 · 118
39. 폴 틸리히 · 121
4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124
41. 하나님 나라의 모델 · 127
42. 한국 교회 이야기 · 129
43.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성경 · 132
44. 희망의 신학 · 135
45. 힘내라, 한국 교회 · 138

교양

46. 감각과 영혼의 만남 · 141
47. 김예슬 선언 · 144
48. 간디 자서전 · 147

- 49. 거짓의 사람들 · 150
- 50. 고쳐 쓴 한국 현대사 · 153
- 51. 공감의 시대 · 156
- 52. 과학과 근대세계 · 159
- 53. 과학혁명의 구조 · 162
- 54. 국가 · 165
- 55. 깊은 강 · 168
- 56. 나의 생애와 사상 · 171
- 57. 대답 · 174
- 58. 대학의 이념 · 177
- 59. 대학 · 중용 강설 · 180
- 60. 뜻으로 본 한국역사 · 183
- 61. 문명화과정 · 186
- 62. 물질, 생명, 인간 · 189
- 63. 미쳐야 미친다 · 192
- 64. 백범일지 · 195
- 65. 시몬느 베이유 불꽃의 여자 · 198
- 66. 사다리 건너차기 · 201
- 67. 사랑의 기술 · 204
- 68. 살아남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 207
- 69. 상처입은 치유자 · 210
- 70. 새로 쓰는 성 이야기 · 213
- 71. 생각의 지도 · 216
- 72.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 219
- 73. 서양미술사 · 222
- 74. 선인들의 공부법 · 226
- 75. 쉽게 읽는 퇴계의 성학십도 · 229
- 76. 소유냐 존재냐 · 232

- 77. 시간의 역사 · 235
- 78. 시인을 찾아서(1, 2) · 238
- 79.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 241
- 80. 신화의 힘 · 244
- 81.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 247
- 82. 얇의 나무 · 250
- 83. 여성 그대의 사명은 · 253
- 84. 오래된 미래 · 256
- 85.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 262
- 86.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 262
- 87. 이것이 인간인가 · 264
- 88. 이타적 유전자 · 267
- 89.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 270
- 90. 장미의 이름(상, 하) · 273
- 91. 정의란 무엇인가 · 276
- 92. 죽음의 수용소에서 · 279
- 93.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282
- 94. 참회록 · 284
- 95. 천국의 열쇠 · 287
- 96. 철학 이야기 · 289
- 97. 탐욕의 시대 · 292
- 98. 학문의 즐거움 · 295
- 99.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 298
- 100. 황홀한 글감옥 · 301

